



마약주사로 에이즈에 감염된 베트남인

송도에 에이즈백신 공장

인천 송도신도시에 세계적인 에이즈 백신 개발 회사의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미국 백신젠(VaxGen)과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 4공구 부지 3만여평에 대한 사업부지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신젠은 국내의 투자자를 통해 모두 5,000만~1억 5,000만 달러를 유치한 후 내년 11월쯤 공장을 착공, 오는 200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백신젠은 공장 안에 에이즈 백신 생산에 매개가 되는 동물세포 배양시설을 4~12기 설치할 계획이다.

백신젠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식품의약국(FDA)과 공동으로 에이즈 백신기술을 개발중인 생명공학 업체로,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백신공장을 1개 가지고 있으며 해외 백신공장 건립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일보, 10/20)

에이즈약 갈등 확산 ... 제약업계 파장 클 듯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을 둘러싼 각국 정부와 제약업체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생명권을 내세워 제약사들 스스로 치료제 가격을 인하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브라질이다.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 가격 인하를 거절한 로슈 파마시유틸리티사에 “특허권을 취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호세 세라 브라질 보건장관은 “지난 6개월 동안 로슈

사와 가격 협상을 벌였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특허권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을 박탈하면 카피(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가격인하 효과가 생긴다. 남미에서 에이즈 환자수가 가장 많은 브라질이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면 세계 제약업계에 큰 파장이 미치게 된다. (중임일보, 8/24)

에이즈 치료 “한발 앞으로”

한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던 한 무독성 바이러스가 에이즈 질환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과학자들은 GB 바이러스 C라는 미생물이 에이즈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고 면역시스템의 파괴를 지연시키며, 에이즈 치료제의 효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뉴잉글랜드 메디컬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1996~2000년 독일 하노버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미처 항체가 생기지 않은 에이즈 환자의 사망률은 5%였으나 감염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은 40%에 이르렀다.

이 연구를 검토한 독일 면역학자 라인홀트 슈미트는 “예가치 못했던 일”이라며 이번 발견을 반기면서 “에이즈에 이런 효력을 나타낸 미생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GB 바이러스를 잘 활용하면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임일보, 9/6)



케냐의 에이즈감염 어린이들과 함께 한 전 가봉대통령 제리로울링

브라질, 노인층 에이즈 확산 예방에 주력

브라질 보건부는 교육 캠페인과 콘돔 배급 등을 통해 노인 인구의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통계 결과 50세 이상 브라질 국민 사이에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인 세대에서의 에이즈 문제를 보다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각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 노인들의 에이즈 인구는 브라질 전체 수치인 21만명 가운데 1만5천263건으로 미미한 정도이지만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69세 사이의 브라질 국민의 에이즈 발병율은 1990년 인구 10만명 당 7명 수준에서 1998년에는 인구 10만명 당 19건으로 거의 두배 이상 증가했다. (로이터인터넷, 9/7)

에이즈 백신 원숭이 실험 대성공

원숭이 실험 결과 에이즈에 대해 거의 완벽한 효과를 발휘한 백신이 임상 실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막된 '2001 에이즈 백신 회의'에서 미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노번 레트빈 박사는 "새로 개발한 에이즈 백신을 접종받은 원숭이들이 치사량의 에이즈 바이러스(HIV)가 주입된 지 600일이 지난 현재까지 바이러스 감염증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레트빈 박사는 "이 에이즈 백신은 HIV 유전자에 인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단백질 인터류킨2를 가미

한 것으로 이 백신을 맞은 원숭이들은 몇 달 안에 죽을 치사량의 HIV를 주입받고도 1년반이 지난 현재 멀쩡하다"고 말했다. 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채 치사량의 HIV가 주입된 원숭이들 가운데 87%에서 에이즈가 발생했고 그 중 4분의 3이 죽었다는 것.

그는 "이 백신이 HIV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 들어갔다"면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대규모 HIV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화까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00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4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에이즈 치료와 백신 연구를 주제로 한 360여건의 보고서들이 발표될 예정.

'프라임 부스트'(Prime-boost)라는 에이즈 치료법도 이번 회의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1차 접종 뒤 몇 주간 격을 두고 잇따라 추가 접종을 실시해 에이즈에 대한 인체의 감시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동아일보, 9/8)

"에이즈로 사망률 40%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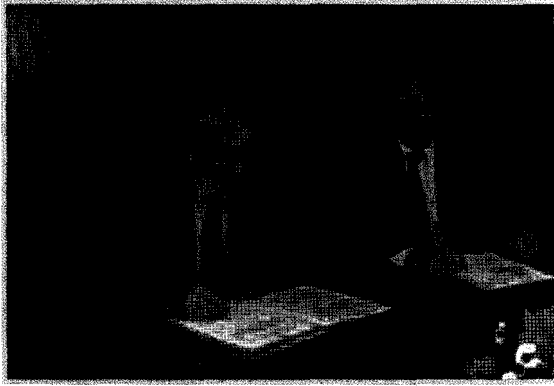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인 사망률이 에이즈로 인해 향후 10년간 4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HO는 마닐라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안전한 마약 투여를 위해 깨끗한 주사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에이즈가 향후 수년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목숨을 빼앗는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에이즈로 인해 성인 사망률이 10년내 5%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그리고 인도의 몇개 주(州)에서는 성인 사망률이 4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WHO는 내다봤다.

WHO는 그러나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은 "예방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보유하고 있는 등 에이즈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8/25)



유엔에이즈(UNAIDS)에 공동후원자로 조인하고 있는 ILD 사무총장

中 “60만명 에이즈 감염” ... 정부, 첫 공식인정 실제로는 더 많을 듯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에이즈 감염자는 모두 60만명에 이르며, 이중 일부는 헌혈 혹은 매혈을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더구이(은대규)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60여만명이고 이중 6% 정도는 헌혈 과정에서 감염됐다”며 “헌혈로 인한 감염자는 3만~5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중국 중부의 빈곤지역의 경우 헌혈(사신상의 매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 부부장은 또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1997년 이후 매년 10만명씩 증가 중”이라며 “정부는 2010년까지 에이즈 감염자가 150만명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중국 내에서 헌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불안정한 성행위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내 에이즈 환자 대부분이 마약 사용자이며 이들은 전체 에이즈 감염자의 71%를 차지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혈액 공급업자들은 1990년 초부터 혈액에서 혈장을 채취한 뒤 나머지는 다시 헌혈자에게 넣어주는 성분 헌혈을 실시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중부 허난(하남)성에서만 100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허난성 원러우 마을 주민 1645명을 검사한 결과 19.33%인 318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나타났으며 1995년 이전에 매혈을 한 568명 중에서는 244명(43%)이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8/24)

에이즈 감독 체계 제 기능 못하는 국가 많아

전 세계 국가 중 약 40%는 HIV나 에이즈 감염자 실태 파악을 위한 감독 체계가 “전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소속 네트 워커 박사팀이 『에이즈』 저널 최근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그러나, HIV로 인해 가장 극심한 영향을 입은 국가들 가운데 이 같은 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춘 국가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 고무적인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트 워커 박사 팀은 지난 1999년 말 발표된 HIV/에이즈 관련 자료를 근거로 세계 각국의 HIV 감독 체계의 현 주소를 조사했다.

조사팀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나온 자료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 UNAIDS의 감독/감찰 보고서까지 포함, 전 세계 167개의 에이즈 관련 감독 기구에 대해 조사했다.

167개 감독 기구 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기구는 47개에 불과했고 51개 기구가 “그저그린” 감독 기구로 평가받았으며, 69개는 “제 기능을 못하거나”, 활동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조사팀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에이즈 감염자가 많은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된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히고, 그 예로 미국의 경우 HIV 감염자도 많은 반면 감독 체계 역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로이터인터넷, 9/18)

日, 에이즈환자 출산성공

에이즈 바이러스를 제거해 인공수정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정상아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돗토리 대학병원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남편의 정액에서 에이즈바이러스를 제거한 뒤 인공수정 해 감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아이를 탄생시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출산으로 산모도 감염되지 않았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치료방법으로 올 여름 니이가타 대학병원에서도 체외수정을 통해 두 쌍의 부부가 임신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습니다. (YTN, 10/2)

美 FDA 자문위원회, 질리드의 에이즈 치료제 “승인” 권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 위원회는 실험 단계에 있는 질리드 사이언스社의 에이즈 치료제 비레드(Viread)가 HIV 바이러스의 수준을 낮추는데 효능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문위원회는 또 다른 치료제에 저항력이 생긴 HIV 변종에 효능을 보인 비레드에 대한 시판 승인을 촉구했다.

자문위원회는 그러나 이 약에 대한 시판 승인의 범위를 다른 치료법에 저항이 생긴 환자들에게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FDA는 대부분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다. (로이터인터넷, 10/4)

아시아 지역 에이즈 확산 방지 대책 시급

아시아 국가들은 대규모로 확산되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서둘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전 세계 40개국, 100여명의 HIV 전문가로 구성된 에이즈 감시(MAP) 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MAP 네트워크 운영 위원인 베른하트 슈와트란더 박사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에이즈 회의에서 가진 발표를 통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MAP 네트워크의 카렌 스타네키 박사에 따르면 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매춘 산업이 조직화되어 있으며 지난 수년간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매춘업 종사자들의 HIV 감염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타네키 박사는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1988년이

래 10년간 HIV 감염자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도시 지역 매춘업 종사자들의 감염률이 18%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역시 MAP 네트워크 소속인 웨라시트 시티프라이 박사는 그러나 예방에 성공한 사례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국의 경우, HIV 예방 프로그램이 제대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향후 몇년 이내에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있는 정부 관리 등 정치적으로 고위 선상에서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이 관련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늘리며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인터넷, 10/5)

“에이즈 백신 6~10년 뒤 나온다”

처음 한 동안은 완벽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향후 6년 내지 10년 후에는 시험에 성공한 에이즈 백신이 처음으로 생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7일 밝혔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비용이 1회 사용량 기준으로 몇센트에서 100달러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 및 HIV 바이러스 주 피해 지역인 개발도상국에서의 백신 사용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제6회 국제에이즈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백신 시험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 마가렛 존스톤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이 유력한 백신인 백스젠社 에이즈백스(AIDSVAX)가 현재 3단계 임상실험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실험이 실시되고 있는 에이즈 백신은 전세계적으로 90종 이상이다. (로이터인터넷, 10/7)